

의대 증원 확정됐지만 갈길 먼 전남대·조선대

전남대, 온라인 강의 출석 저조
조선대, 학사일정조차 나오지 않아
“이런 상황이면 2학기 연기 불가피”

의과대학 증원에 동참한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가야 할 길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강의를 열었지만 학생들이 호응을 하지 않거나, 반발 등을 고려해 학사일정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1학기 학사일정은 이미 끝났다’는 반응도 있다.

무더기 휴학으로 이미 두 달 넘게 개강

이 미뤄진 데다가, 증원 방침에 따른 재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수업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7일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에 따르면 먼저 전남대의 경우 지난달 29일 개강했다. 이는 평소 일정보다 두 달 늦어진 것으로 증원 추진에 반발한 학생들의 무더기 휴학 때문이다. 학교 내부에서는 학생들의 복귀를 기다리며 세 번 연기를 했지만 수업일수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무리인 게 불가해 어쩔 수 없이 개강했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개강을 해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전남대의

대는 학생들의 결석을 우려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열고 시청 기록을 출석과 동일하게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온라인 강의마저도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의대는 아예 학사일정이 나오지도 않았다. 현재 725명 중 80% 이상 재학생이 휴학을 신청하면서 학사 일정이 잠정 중단된 것이다.

다만 대학 수업일수와 국가고시 응시자격 충족 등을 감안해 이날 의대 학사일정 재개 시점을 논의했다.

일단 지역의 두 대학은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국가고시 응시 결격 등 불이익은

받지 않되, 강의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학 기간에 따른 학기 미이수 관련 학칙 개정 △지각 개강에 따른 보강 일정 구체화 △방학 기간 중 보충 강의 편의 제공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향후 발생할 재학생들의 반발이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각각 163명과 150명으로 확정했다. 전남대는 현 125명에서 정부 증원배정안 50%인 38명을 더 늘린다. 조선대는 현 125명에서 정부안 증원분 100%인 25명을 모두 수용했다.

두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가 담긴 학칙 개정까지 마치고 신입생 모집 절차에 나선 만큼, 의대생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솔직히 1학기는 이미 끝났고, 2학기도 위태롭다. 이리다가는 미래로 공백이 현실이 될 것 같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이 돌아와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일단 학생들이 강의실로 와야 뭐가 돼도 되지 않겠나. 하루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화순전남대병원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가속화 한다

올해 바이오산업 기반구축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실증지원’ 유치
72억6천만원 투입 신약산업 견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4년도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과제명은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핵심 실증지원’이다.

7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핵심 실증지원’ 사업은, 병원 중심 고부가가치 신약소재물질 산업화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가속화와 응용제품 다각화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4년간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핵심 비임상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임상전문인력 활용 비임상실증 및 사업화 △고부가가치 신약소재물질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국비 49억6200만원을 포함해 모두 72억6200만원(전남도비 6억4800만원·화순군비 15억1200만원·민자 1억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약소재물질은 신약, 개량신약, 복제약으로 사용되기 위해 효능과 독성 검증이 요구되는 의약품 개발단계 소재물질이

며 유효물질, 선도물질, 후보물질을 포함한다.

합성의약품, 천연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복제의약품(제네릭·바이오시밀러), 치료제 특성을 갖는 뉴트라슈티컬(건강기능식품) 소재물질 등도 지원 범위에 해당된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을 통과해 임상진입이 확정된 신약소재물질은, 수천억원의 가치를 보유한 제품이다. 특히 신약소재물질을 확보한 기업은, 국내외 협업을 통해 신약개발단계로 진입해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신약 성공 시에는 1조원 이상의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년간 축적된 암 관련 고순도 빅데이터 및 병기별 암 검체를 보유한 화순전남원은 정밀 의료 산업화 플랫폼 운영과 의약품 GLP 기반 시설 마련,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지원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미생물 배양 기반 백신·바이오 의약품 전문 CDMO 기관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센터장 조민)의 참여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약소재산업 육성과 산업화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은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번 사업 유치를 통해, 전라남도가 구상하는 ‘블루 바이오’ 실현과 ‘국가 첨단전략산업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단장인 신명근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약소재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해, 지역과 국가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질병청, 코로나급 질병 상대할 질병감시전략담당관 신설

14일자 조직개편 실시
예방접종 분야 2→3개과 확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체계에서 일상적 감염병 대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부서통합을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청장 직속 부서로 신설해 국내외 감염병 감시 체계 통합관리 및 신규 감시기법 도입 등 미래의 질병 위험 사전 감시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질병 발생 상황 등 정보를 심층 수집하고 대국민·의료진·해외여행객·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기대응분석관’은 ‘질병데이터과학 분석관’으로 명칭 변경한다. 빅데이터 기반 효과적 정책 수립 근거를 지원하고 방역 현장 대응과 기술지원 및 역학조사관 운영 등 제도·인력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위기분석담당관·역학조사분석담당관·위기대응연구담당관 등 4개 과를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질병관리

역량개발담당관 등 3개 과로 개편한다. 미래 감염병 대비 질병데이터 통합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인력 양성은 한 개 부서로 통합·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예방접종관리과’에서 1개 과를 분리·신설해 예방접종 분야 부서를 2개 과(예방접종관리과·백신수급과)에서 3개 과(예방접종정책과·예방접종관리과·백신수급과)로 운영한다. 예방접종의 안정적 추진, 신규 백신 도입 및 대규모 감염병 신속 대응, 이상 반응 국가 책임 강화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비감염 건강위해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신설된 ‘건강위해대응관’은 ‘손상예방관리과’를 주무과로 해 기능을 강화한다. ‘건강위해대응과’와 ‘미래질병대비과’는 통합해 1개 과로 개편하고 ‘의료방사선과’를 ‘건강위해대응관’ 하부조직으로 이동한다.

조직개편 시행일은 14일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 ‘뿐 아니라’ ‘평시 감염병 대비’와 ‘상시 감염병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체계를 전환하겠다”며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감시체계 정비 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재배치를 추진해 인력 효율화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